



- 문법 개념서의 기준 -

# 개념 있는 국어 문법

## 머리말

문법이라는 말을 생각하면 '딱딱하다, 어렵다, 외워야 한다' 등의 단어를 연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연상되는 말들은 모두 부정적인 것들이며 심지어 문법 교육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이렇게 된 이유를 따져 보면 문법 교육이 제 역할을 못 했기 때문이고 그 책임에서 문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이들이 자유로울 수 없다. 이러한 이유로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국어 문법을 쉽게 설명한 제대로 된 문법 개념서가 있어야겠다는 생각에 공감하고, 글쓴이들이 힘을 합하여 이 책을 출판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집필하면서, 달아나려고만 하는 학생들을 친절하고 자상하게 우리말 문법의 샘에 모이게 하는 작업이 쉽지만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 여전히 학습자들은 문법을 어려워하고 정답만을 찾는 학습을 되풀이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책을 집필한 이들은 모두 대학에서 오랫동안 문법을 연구하고 가르쳐 온 문법 전공자들이다. 우리는 국어 교사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문법 교육의 문제점을 교사들과 지속해서 소통하고 개선 방안을 찾으려 노력하였다.

이번에 개정판을 내면서 중점을 둔 부분은 기본 개념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한 점이다. 단편적인 암기식 지식에 대한 평가보다는 탐구 학습의 개념이 적용된 문항의 개발에 치중하였다. 문제 해결 능력을 평가하는 데 비중을 두면서, 기본적인 개념과 원리에 대한 기반 지식을 철저히 할 때 다음 단계의 학습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고등 사고력의 구성 요소인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본'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이다.

앞에서 문법 과목에 대한 오해를 언급했지만, 실제로 문법은 우리에게 매우 유용한 과목이다. 문법 능력은 말하기, 듣기, 읽기, 쓰기, 문학 영역의 바탕이 될 뿐만 아니라, 국어의 소중함과 가치를 일깨우고 국어 의식을 높이는 데에 이바지하기 때문이다. 우리 민족의 큰 스승인 국어학자 외솔 최현배 선생이 남기신 “한글이 목숨이다.”라는 말씀을 경건하게 가슴에 새겨볼 일이다. 이 책은 우리 말과 글에 담겨 있는 규칙과 질서를 찾아내어 그 원리를 밝힘으로써, 학습자들이 문법을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였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이 문법에 대한 기본을 탄탄하게 하고, 문법에 흥미를 갖고 공부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 I

## 문장 \_ 유현경(01), 이정택(02)

01. 문장의 구성 .....	18
① 문장의 구성 요소 .....	20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2. 문장의 구성 단위	
② 문장의 성분 .....	24
1.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2. 문장 성분의 성립	
③ 문장의 짜임 .....	39
1. 문장의 짜임새	
2. 안은문장	
3. 이어진문장	
실전 문제 .....	53

0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60
① 문법 요소 .....	62
1. 높임 표현	
2. 종결 표현	
3. 시간 표현	
4. 피동 표현	
5. 사동 표현	
6. 부정 표현	
7. 인용 표현	
② 문장의 의미 .....	98
1. 함성성의 원리	
2. 문장 간의 의미 관계	
실전 문제 .....	102

# II

## 단어 \_ 김홍범

01. 품사 .....	112	03. 단어의 의미 .....	176
① 품사의 개념과 분류 기준 .....	114	① 단어 의미의 종류 .....	178
② 품사의 종류와 특성 .....	115	1. 개념적 의미	
1. 체언		2. 연상적 의미	
2. 용언		3. 주제적 의미	
3. 수식언		② 단어의 의미 관계 .....	182
4. 관계언		1. 유의 관계	
5. 독립언		2. 반의 관계	
실전 문제 .....	145	3. 상하 관계	
		4. 동음이의 관계	
		5. 다의 관계	
		③ 단어의 의미 변화 .....	189
02. 단어의 형성 .....	154	1. 의미 변화의 원인	
① 형태소와 단어 .....	156	2. 의미 변화의 유형	
1. 형태소와 단어의 개념		실전 문제 .....	193
2. 형태소의 종류			
3. 형태소와 단어의 차이			
② 단어의 구성 요소 .....	159		
1. 어근과 접사			
③ 단어 형성법 .....	163		
1. 단일어와 복합어			
2. 합성어			
3. 파생어			
실전 문제 .....	170		

# III

## 음운 - 성낙수

01. 음운과 음운 체계	198
① 음성과 음운	200
1. 음성	
2. 음운	
② 국어의 음운 체계	204
1. 국어의 음운	
2. 국어의 음절	
실전 문제	216

02. 음운의 변동	222
① 음운 변동의 개념	224
② 음운 변동의 종류	225
1. 교체	
2. 축약	
3. 탈락	
4. 첨가	
실전 문제	242

# IV

## 담화 \_ 이병규

01. 담화의 구성과 기능 .....	252	02. 담화의 구조와 표현 .....	264
① 담화의 개념 .....	254	① 담화의 짜임 .....	266
② 담화의 구성 단위와 요소 .....	255	② 담화의 특성 .....	267
1. 발화와 담화		1. 통일성	
2. 발화 행위		2. 응집성	
3. 담화의 구성 요소		3. 의도성	
③ 담화의 기능과 유형 .....	259	4. 수용성	
1. 담화의 기능		5. 정보성	
2. 담화의 유형		6. 상황성	
실전 문제 .....	262	7. 상호 텍스트성	
		③ 담화의 표현 .....	274
		1. 지시 표현	
		2. 높임 표현	
		3. 생략 표현	
		4. 심리적 태도 표현	
		실전 문제 .....	278

# V

## 어문 규범 \_ 박동근

### 01. 표준에 맞게 말하기 .....282

#### ① 표준어의 개념 및 규정 .....284

1. 표준어의 개념
2. 표준어의 역사
3. 국어의 표준어 사정 원칙
4. 발음 변화에 따른 표준어 선정
5. 어휘 선택의 변화에 따른 표준어 선정
6. 복수 표준어

#### ② 표준 발음법 .....291

1. 표준 발음법의 원칙
2. 자음과 모음
3. 받침의 발음
4. 음의 동화
5. 경음화
6. 음의 첨가

#### 실전 문제 .....297

### 02. 어법에 맞게 쓰기 .....300

#### ① 한글 맞춤법의 원칙과

#### 주요 규정 .....302

1. 한글 맞춤법의 원칙
2. 자모
3. 소리에 관한 것
4. 형태에 관한 것
5. 그 밖의 것
6. 구별하여 적는 말
7. 띄어쓰기

#### ② 외래어 표기법 .....311

1. 표기의 원칙
2. 주요 표기 세칙(영어)
3. 인명, 지명 표기의 원칙
4. 바다, 섬, 강, 산 등의 표기 세칙

#### ③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316

1. 표기의 기본 원칙
2. 표기 일람
3. 표기상의 유의점
4. 이름의 표기
5. 행정 구역 표기

#### 실전 문제 .....319

### 03. 좋은 표현법 사용하기 .....324

#### ① 문장 다듬기 .....326

1. 올바른 단어 사용하기
2. 문장 성분 바로 쓰기
3. 자연스러운 문장 쓰기

#### ② 표준 화법 알기 .....333

1. 가정에서의 호칭·지칭
2. 사회(직장)에서의 호칭·지칭
3. 경어법
4. 일상생활의 인사말
5. 소개하는 말

#### ③ 문장 부호 알기 .....337

1. 문장 부호의 필요성
2. 문장 부호의 종류와 쓰임새

#### 실전 문제 .....341



# VI

## 국어사 \_ 성낙수

### 01. 한글 창제와 문자

생활의 변화	346
① 우리말에 안성맞춤, 한글	348
1. 한글의 창제	
2. 한글 창제의 원리 및 당대 표기법	
3. 한글의 우수성	
② 한글 창제 이전의 문자 생활	359
1. 차자 표기의 의미와 방법	
2. 차자 표기의 종류	
3. 차자 표기 방식의 소멸	
실전 문제	365

### 02. 우리말의 변천 과정

① 우리말의 기원과 형성	372
② 음운의 변천 과정	373
1. 자음 체계의 변화	
2. 단모음 체계의 변화	
3. 우리말 성조의 변화	
4. 음운 현상의 변화	
③ 문법의 변천 과정	378
1. 고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	
2. 중세 국어의 문법적 특징	
3. 근대 국어의 문법적 특징	
④ 어휘의 변천 과정	388
1. 고대 국어 어휘의 변천	
2. 중세 국어 어휘의 변천	
3. 근대 국어 어휘의 변천	
4. 현대 국어 어휘의 변천	
실전 문제	391

## 1 문법 요소

**1. 놀임 표현**

**(1) 놀임 표현**

**놀임법의 개념**

놀임법이란 특정 대상을 일정한 수준으로 대우하는 의도를 나타내는 문법의 범주를 말한다. 예를 들어 아래 예문 (가)는 주적인 할아버지를 높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나)와는 분명히 차별되는데, 이러한 문법적 표현 방식을 놀임법이라고 한다.

(가) 할아버지가 오셨다. → 오시어→할→오  
(나) 할아버지도 오셨다. →해배오→할→오

**(2) 놀임법의 종류**

우리말은 다른 언어들과는 달리 놀임법의 범주가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다. 국어의 놀임법은 대우하는 대상이 누구인자에 따라 크게 상대 놀임법, 주체 놀임법, 객체 놀임법으로 나뉜다.

놀임법의 종류	놀임의 대상	놀임의 실현 방법
상대 놀임법	회자의 말을 하는 상대	- 올곧이 - 높고 - 거대하다, - 거대시- 등
주체 놀임법	사물이나 존재 주어에 나타나는 명사	- 귀 - 아름답다, - 드물다, - 많다 등
객체 놀임법	사물이나 존재 목적어에 나타나는 명사	- 귀하다, - 드물다, - 많다 등

**① 상대 놀임법**

상대 놀임법은 말하는 이가 대화 상대인 듣는 이를 대우하여 표현하는 방법으로 중립 표현을 통해 실현된다. 여기서 상대 놀임법은 격식의 유무에 따라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② 주체 놀임법**

주체 놀임법은 의목적 용법으로 실현되는 격식체를 나타낸다.

격식체	의목적 용법으로 실현되는 격식체
하급사격	그럼 <b>고맙습니다</b> .
회답체	그럼 <b>고맙습니다</b> .
하급체	그럼 <b>고맙습니다</b> .
회답체	그럼 <b>고맙습니다</b> .

위 예문에 사용된 중립 어미들은 격식적인 문체로 듣는 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대우하는데, 이들 중립 어미의 형태에 근거하여 격식체는 놀임의 순서에 따라 하급사로

## 2 문장의 성분

**3. 한 걸음 더** **보어의 확대 가능성**

한편 학교 문법에서는 보어를 '이다' 이외에 구문에서 필수적으로 나오는 주어 이외의 문장 성분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학교 문법의 보어와 차이가 있지만 주어나 목적어 이외에 문장에서 요구하는 필수적 성분은 여러 가지가 있다.

(가) 나는 **졸음**이다.  
(나) **졸음**은 **졸음**이다.  
(다) **졸음**은 **졸음**이다.  
(라) **졸음**은 **졸음**을 **졸음**이다.

위 예문의 앞쪽 진 부분은 생략할 수 없는 문장의 필수적 성분이다. 학교 문법에서 (나), (다), (라)의 앞쪽 진 부분은 필수적 부사어로 분류하고 있지만, (가)의 앞쪽 진 부분은 보격 조사와 같은 형태를 취하고 있으므로 부사어로 보지 않는다. 따라서 (가)와 같은 심리 행동사 중 주어 이외에 다른 문장 성분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보어로 보아야 할 가능성이 있다.

**심리 행동사**  
'있다, 내린다, 졸다, 잠그다'  
등과 같이 언어의 구성요소인 문장 성분으로 나타나는 행동사

**4. 질문 있어요!**

**나는 선물을 선물하게 되었지만 '당신이 세 가지 선물하러와서 나는 선물을 선물하게 되었지만'은 문장성분 중 어떤 문장성분이 포함되어 있는가요?**

목적어 조사 '들/를'이 붙은 목적어로 보는 학교 문법의 입장에서는 '선물하게는' 부사어, '선물'은 목적어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의 '선물'을 목적어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선물'은 왜나 가능으로 볼 때 '선물에게' 받디문 차이가 없으며 '선물'을 필수적 부사어로 보아야만 세 가지 '당신'의 자릿수를 온전히 만족시킬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입장에서는 목적어 조사 '들/를'을 목적어를 나타내는 격 조사와 강조의 의미를 나타내므로 보조사로 나누어 설명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학교 문법에서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들/를'을 목적어 조사로 보지, '선물'의 '를'은 목적어 조사의 보조사적인 용법 정도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었지만 '말'은 주어인가? 보어인가?**

'말이' 명문이 되었다. '말' 명문은 보어이지만, '말' 명문으로 되었다. '말' 명문으로 부사어가 됩니다. 이처럼 '말'은 두 가지 사용으로 쓰이기도 하지만 한 자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말이 되었다', '말이 많이 되었다.' 등의 문장에서는 주어와 보조사 명문이 생략되어, 이러한 한 자리로는 '말'은 구문에서는 주어일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 1. 본문**  
문법의 개념을 빠짐없이, 쉽게! 친절한 설명과 풍부한 예시를 통해 어렵기만 했던 문법 개념들이 머릿속에 쏙쏙 들어옵니다. 교육과정의 성취기준, 교과서의 내용을 분석하여 학생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문법 지식을 담았습니다.
- 2. 날개**  
본문과 관련하여 알아 두어야 할 개념을 보강하여 설명하였습니다.

- 3. 한 걸음 더**  
본문의 기본 개념을 좀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보충, 심화 부분을 설정하여 충분한 예를 중심으로 설명함으로써 개념의 빈자리를 콕콕 채울 수 있습니다.
- 4. 질문 있어요!**  
학생들이 매우 알쏭달쏭해 하고 궁금해 했던 질문을 교수님들의 명쾌한 해설을 통해 알려줌으로써 누구도 짚어 주지 못했던 부분을 확실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4 1. 문법

이 문장의 구성 31

### 개념 확인 문제

1. **어디가 새마을 운동에서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1. 새마을 운동에서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2. **어디가 1970년 이후에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3. **어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 실전 문제

1. **어디가 새마을 운동에서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2. **어디가 1970년 이후에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3. **어디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3중건설을 추진하였는지?** **정답: 1, 2, 3, 4**

### ▶ 개념 확인 문제

소단원에서 학습한 핵심 개념과 내용을 문제를 통해 확인하며 기본을 튼튼히 할 수 있습니다.

### ▶ 실전 문제

통합적이고 난이도 있는 문제를 통해 자신의 실력을 점검하여 수능에 대한 실전 감각을 기를 수 있습니다.

### 생각 키우기

1. **가위와 도끼를 비교하여 가위와 도끼의 차이점을 찾아라!**

2. **가위와 도끼의 공통점을 찾아라!**

3. **가위와 도끼의 차이점을 찾아라!**

4. **가위와 도끼의 공통점을 찾아라!**

### 생각 키우기

1. **가위와 도끼를 비교하여 가위와 도끼의 차이점을 찾아라!**

2. **가위와 도끼의 공통점을 찾아라!**

3. **가위와 도끼의 차이점을 찾아라!**

4. **가위와 도끼의 공통점을 찾아라!**

### ▶ 생각 키우기

다양하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를 통해 문법은 단순 암기 과목이라는 선입견을 버리고 문법에 대한 탐구 능력을 키울 수 있습니다.

### I. 문장

#### 1. 문장의 구성

##### 1. 문장의 구성요소

1.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 인용어, 감탄어, 절

2.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 인용어, 감탄어, 절

3.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 인용어, 감탄어, 절

#### 2. 문장의 종류

1.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 인용어, 감탄어, 절

2.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 인용어, 감탄어, 절

3.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충어, 관형어, 부사어, 인용어, 감탄어, 절

### ▶ 정답과 해설

꼼꼼하고 친절하고 해설과 오답풀이를 통해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완벽히 채워 갈 수 있습니다.

## 찾아보기

### ㄱ

가변어	114
가산 명사	115
가존법	65
기획의 원리	353
각자 병서	350
간접 높임	64, 330
간접 발화	256, 257
간접 인용	46, 95
감정 감탄사	143
감탄문	46, 67
감탄사	37
감탄형 어미	128
강세	180
개념적 의미	178
객체 높임법	62, 65
거성	356
거센소리되기	224
격식체	62
격 조사	25, 31
겹문장	39
겹받침	236
경구개음	204
경어법	62
경음화	224, 228
고유 명사	115, 303
고유어	120
공용 체언	385
공용어	284
과거 시제	74
관계 관형절	41
관계언	138
관용	234
관형격 조사	33
관형사	131
관형사형	132
관형사형 어미	41, 76, 133

관형어	24, 33
관형절	40, 41
교체	224, 225
구	21
구개음화	224, 227
구결	359
구속 형태소	156
구조적 중의성	331
굴절 접사	159
규칙 활용	126
-기 명사절	41
긴 관형절	42
긴소리	212
끝소리 규칙	224, 225

### ㄴ

ㄴ 첨가	224
-내	380
'나라' 불규칙	127
높임 표현	62, 274
누	380
-는	41
-는 것	40
-는/-ㄴ-	77
능력 동사	28

### ㄷ

ㄷ 덧붙이기	239
ㄷ 불규칙	127
단모음	208, 291
단어	156
단위성 의존 명사	116
단일어	163
담화	254
대등 합성어	163
대등적 연결 어미	129
대등하게 연결된 이어진문장	40, 49

대명사	118
대상 활용	381
대응	268
대표음	225
-다-	75
-던-	76
더	380
독립 성분	24, 37
독립어	24, 37
독립언	143
동격 관형절	42
동국정운식 표기	356
동명사형 어미	378
동사	22, 123
동음이의 관계	186
동작상	79
동화	226
된소리	204, 205
된소리되기	224
두음 법칙	224, 228
따옴표	338
띄어쓰기	308

### ㄹ

ㄹ 탈락	237
ㄹ 불규칙	127
로마자	316
ㄹ 불규칙	127

### ㅁ

마찰음	205
마침표	337
말다	90
말소리	178
명령문	70
명령형 어미	128
명사	115
명사 파생 접사	380

명사절	40
명사형 어미	26, 40
모음	208
모음 축약	224
모음 탈락	224
모음 조화	287, 372
모음추이설	375
목적격 조사	29
목적어	24, 29
무정 명사	115
문법 형태소	157
문장	20
문장 부사	134
문장 부사어	35
문장 부호	46, 337
문장 성분	24, 328
문장 종류	71
문장 형식	20, 21
문장의 의미	98
문장의 확대	39
미래 시제	74, 78
미지칭 대명사	118

## ㅂ

ㅂ 불규칙	127
바른 문장	326
반모음	209
반모음화	234
반사적 의미	179
반의 관계	99
반절법	352
받침소리	292
발음 기관	200
발음 변화	285, 289
발화	212
발화 행위	255
발화시	74
변별적 기능	202
변이음	202
보어	24, 30, 59

보조 용언	27, 124
보조사	25, 138
보조적 연결 어미	129
보통 명사	115
복수 표준어	289
복수형	330
복합어	163
본용언	124
부사	133
부사 파생	379
부사격 조사	34
부사어	34
부사절	40, 43
부사형	133
부사형 전성 어미	129
부속 성분	33, 39
부정 부사	134
부정 표현	90
부정문	90
부정칭 대명사	118
분리성	165
분절 표기	374
불규칙 활용	126
불변어	114
불임표	317
비격식체	62, 63
비음	205
비음동화	224
비음화	224
비통사적 합성어	164, 379

## ㅅ

ㅅ 불규칙	127
ㅅ 첨가	239
사건시	74
사동 표현	87, 330
사동, 사동문	88
사동주	86
사성점	356
사어(死語)	288

사이시옷	239
사잇소리 현상	239
사회적 의미	178
상대 높임법	62
상대 시제	74
상보적 분포	202
상성	356
상징 부사	134
상형의 원리	354
상호 텍스트성	271
상황성	271
새말(신조어)	164
생략 표현	275
서수사	120
서술부	21
서술어	24
서술절	40, 46
서울말	284
선어말 어미	25, 74
선택 제약	28
설명 의문문	383
성분 갖추기	329
성분 부사	134
성분 부사어	34
성분 없애기	329
성상 관형사	131
성상 부사	134
성상 형용사	123
성조	356
소개	330
소형문	20
속음	307
수	286
수 관형사	131
수사	120
수식언	131
수용성	270
순음	204
첨표	337
시간 표현	74

시제	43, 74
실질 형태소	157
심리 형용사	31

**ㅇ**

아니다	21
-아서/-어서	49
안은문장	39, 40
알타이어족	372
압존법	65
-았-/~었-	74
양수사	120
양태 부사	134
어간	125, 156
어근	156, 160
어말 어미	128
어미	125, 128
어법	302
어원	285
어절	21
어휘 선택	288
어휘 형태소	157
어휘적 중의성	331
억양	212
언어 예절	325
-었었-	75
여 불규칙	127
연결 어미	49
연구개음	204
연상적 의미	178
언어적 의미	179
연철	349
-오-	381
완료상	79
외래어	311
용언	123
용언의 기본형	126
우 불규칙	127
운소	204
울림	200

원순 모음화	376
유기음화	224
유음	205
유음화	224, 227
유의 관계	182
유일 형태소	157
유정 명사	115
융합 합성어	163
-(으)ㄴ	76, 77
-(으)니까	51
-(으)ㄹ	78
-(으)리-	78
-(으)ㄹ 명사절	41
으 탈락	126
음가	359
음독	359
음성	200
음소	204
음소주의 표기법	355
음운	202
음운 변동	239
음의 동화	226
음의 첨가	239
음장	211
음절	214
음절의 끝소리 규칙	225
음차	359
음향	200
응집성	267
의도성	269
의문 보조사	381
의문문	68, 93
의문형 어미	125
의미	114
의미 중복	329
의존 명사	33, 116, 228
의존 형태소	156
의지 감탄사	143
이다	21, 26
이두	359

이름	308, 317
모음 역행 동화	224, 229
이어진문장	39, 49
이영보래	350
이중 모음	209
이중 피동	330
이체자	353
인명	314
인사말	306
인용 조사	95
인용 표현	95
인용절	40
인칭 대명사	118
인칭 활용	382
일본식 한자어	327
입버릇 감탄사	143
입성	350

**ㅈ**

즈가	380
자동사	29
자립 명사	116
자립 형태소	156
자립성	156
자릿수	27
자모	302
자음	204
자음 축약	234
자음 탈락	237
장단	260
재귀 대명사	26
재귀칭 대명사	118
전문 용어	308
전사법	316
전설 모음화	229
전성 어미	49, 125
전자법	316
전통성	291
절	22
접두 파생어	166

접두사	160
접미 파생어	167
접미사	160
접사	159
접속 부사	35, 134
접속 조사	138
정보성	270
정서적 의미	179
조사	138
조사의 겹침	140
조선어 학회	284
조음 방법	205
조음 위치	204
종결 어미	62, 67~71, 128
종결 표현	67
중성부용초성	352
중속 합성어	163
중속적 관계	303
중속적 연결 어미	129
중속적으로 이어진 문장	40, 50
주격 조사	25, 379
주성분	24, 25
주어	24, 25
주어부	21
주제적 의미	180
주체 높임법	62
중의문	331
중의성	100
중화 현상	376
지명	314
지시 관형사	131
지시 대명사	118
지시 부사	134
지시 표현	274
지시 형용사	123
지칭	333
직접 구성 성분	168
직접 발화	256
직접 인용	95
진행상	79

질량 명사	115
-------	-----

## ㄸ

차자 표기	359
첨가	239
청유문	70
청유형 어미	125
체언	115
체언의 형태 변화	378
최소 대립쌍	202
축약	224, 234
치조음	204
칠중성법	376

## ㅈ

타동사	123
탈락	236
텍스트	254
통사적 합성어	163
통일성	267
특이 형태소	1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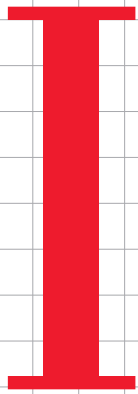
## ㅊ

파생 접사	41, 159
파생어	165
파열음	205
파찰음	205
판정 의문문	383
팔중성법	355
평서문	67
평서형 어미	128
평성	356
평파열음화	225
표음적 표기법	355
표음주의	302
표의적 표기법	355
표준 발음법	291, 316
표준 화법	333
표준어	284
품사	114

품사의 분류	114
피동 표현	81
피동, 피동문	81
피사동주	87
필수적 부사어	27, 35

## ㅎ

ㅎ 불규칙	127
ㅎ 탈락	237
하계제	62, 63
하십시오체	62
하오체	62, 63
한글 맞춤법	302
한자어	288, 307
함축적 의미	178
합리성	291
합성 동사	304
합성 후 파생어	168
합성성	98
합성어	163
합용 병서	350
합용의 원리	354
해라체	62
향찰	359
현재 시제	77
형식 형태소	157
형식적 의존 명사	116
형용사	123
형태	114
형태소	156
형태주의	302
호격 조사	37, 381
호응	328
호칭	333
훈문장	39
후음	205



# 문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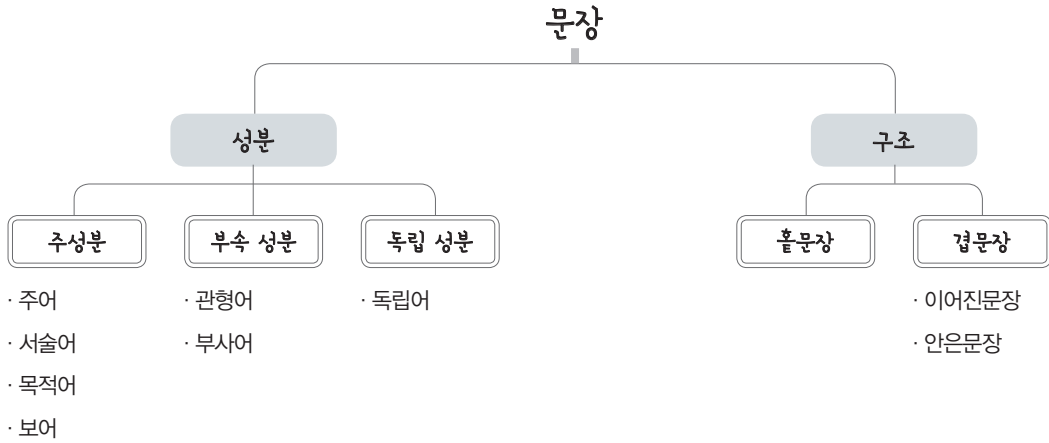
01. 문장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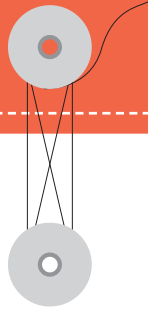
02. 문법 요소의 기능과 의미





## 단원 미리 보기





# 01.

## 문장의 구성

### 1 문장의 구성 요소

---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2. 문장의 구성 단위

### 2 문장의 성분

---

1. 문장 성분의 개념과 종류
2. 문장 성분의 성립

### 3 문장의 짜임

---

1. 문장의 짜임새
2. 안은문장
3. 이어진문장

| 학습 목표 |

- 문장을 구성하는 요소를 이해할 수 있다.
- 문장의 성분에 따라 문장의 구조를 분석할 수 있다.
- 문장의 구조에 따른 문장의 종류를 이해할 수 있다.



이 단원은 문장을 이루는 구성 요소에 대하여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문장의 짜임새와 여러 가지 문법 단위에 관해 이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문장은 언어의 가장 핵심적인 단위로서 단어, 어절, 구, 절 등의 크고 작은 문법 단위들로 이루어진다. 국어의 문장 성분과 종류에 대하여 이해하는 것은 국어의 구조를 아는 데 기본적인 지식을 제공해 줄 것이다.



# 문장의 구성 요소

## 1. 문장의 개념과 기본 골격

### (1) 문장(文章)의 개념

文: 글씨(문), 章: 글(장)

문장이란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나 느낌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이다. 표현하려고 하는 내용을 문장의 형식으로 나타낼 때는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반드시 있어야 할 성분을 갖추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다음과 같이 주어나 서술어와 같은 성분을 완전하게 갖추지 않은 문장도 있다.

- (가) 불이야!
- (나) 아이고!
- (다) 그래?

결국 문장은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형식상으로 문장이 끝났음을 나타내는 표지가 있어야 한다. 문장이 끝났다는 것을 나타내는 표지는 일상 대화의 경우에는 어떤 사물을 다른 것과 구별하게 하는 표시나 특징 억양으로, 문자로 표기할 경우는 온점(.), 물음표(?), 느낌표(!) 등의 마침표로 나타난다. (가)~(다)를 문장으로 보는 이유도 의미상으로 완결된 내용을 갖추고 있고 형식상으로도 문장이 끝났음을 알리는 표지인 느낌표(!)와 물음표(?)가 있기 때문이다. (가)~(다)와 같이 문장의 주어와 서술어를 완전하게 갖고 있지 않은 문장을 소형문(minor sentence)이라 부르기도 한다. 소형문은 '여기가 불이야!'와 같이 주어 등을 넣으면 문장의 성분들이 생략된 문장과 달리 이상한 문장이 된다.

#### ● 소형문(小型文)

'너 어디 가니?'에 대한 대답으로 '학교'라고 했을 때 '학교'는 '(나는) 학교(에) (간다.)'의 괄호 부분을 생략한 것이기 때문에 '학교'를 소형문으로 볼 수 없다.

### (2) 문장의 기본 골격

하나의 문장은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골격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국어 문장은 다음의 세 가지 골격을 가지고 있다.

기본 골격	응례
무엇이 어찌한다.(동작)	• 아이가 웃는다. • 지연이가 잔다.
무엇이 어떠하다.(상태)	• 꽃이 아름답다. • 하늘이 맑다.
무엇이 무엇이다.	• 철수가 중학생이다. • 선희가 선생님이다.

위의 세 가지 기본 골격은 서술어의 성질에 따라 나는 것으로 '어찌한다'는 동사,

‘어떠하다’는 형용사, ‘무엇이다’는 ‘체언+서술격 조사’에 해당된다. 위의 세 가지는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문장 형식으로 나타날 수 있다.

기본 골격	구성	용례
무엇이 어찌한다.	무엇이 어찌한다.	• 아이가 웃는다. • 지연이가 잔다.
	무엇이 무엇을 어찌한다.	• 아이가 밥을 먹는다. • 수지가 장난감을 산다.
	무엇이 무엇이 어찌한다.	• 철수가 중학생이 된다. • 구름이 비가 된다.
무엇이 어떠한다.	무엇이 어떠한다.	• 꽃이 아름답다. • 하늘이 맑다.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	• 철수가 중학생이 아니다. • 그는 바보가 아니다.
무엇이 무엇이다.	무엇이 무엇이다.	• 철수가 중학생이다. • 선희가 선생님이다.

## 2. 문장의 구성 단위

### (1) 어절(語節) → 語: 말뭉치(어), 節: 마디(결)

어절은 문장을 구성하는 기본적인 단위로써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한다. 조사와 어미 등 문법적인 요소는 앞에 오는 단어와 결합하여 어절을 이룬다.  
홀로 쓰일 수 없기 때문에

### (2) 구(句) → 句: 글귀(구)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을 하는 단위를 구라 한다. 하지만 구를 이루는 요소들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

저 하늘이 매우 높다.				문장
저 하늘이		매우 높다		구
저	하늘이	매우	높다	어절

‘저 하늘이 매우 높다.’라는 문장은 먼저 ‘저 하늘이’와 ‘매우 높다’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를 각각 주어부(主語部)와 서술부(敍述部)라 한다. 이때 ‘저 하늘이’와 ‘매우 높다’는 두 개 이상의 어절로 이루어져 있고 이를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구’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구를 이루는 ‘저’, ‘하늘이’, ‘매우’, ‘높다’는 어절이 된다.

#### ● 문장의 여러 형식

문장은 왼쪽의 표에 제시된 여섯 가지 형식보다 더 많이 나타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철수는 영희를 아내로 삼았다.’에서 ‘무엇이 무엇을 무엇으로 어찌한다.’와 같은 형식도 나타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문장의 형식은 다음에 설명할 문장 성분 중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등 주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범위로 한정한다.

#### ● ‘아니다’ 구문의 유형

‘이다’는 현재 학교 문법에서 서술격 조사로 분류되어 있지만 동사와 형용사처럼 활용을 하기 때문에 용언의 성질도 가지고 있다. ‘아니다’는 ‘이다’의 반의어이므로 ‘무엇이 무엇이 아니다.’는 의미적으로 볼 때는 ‘무엇이 무엇이다’와 관련이 있다. 하지만 품사의 측면에서 보면 ‘아니다’는 형용사이므로, ‘무엇이 어떠한다’에 가깝다. 그리하여 여기에서는 서술어가 형용사인 문장의 한 가지로 묶어 보았다.

#### ● 구의 종류

- 명사구  
예) 저 새 공책은 철수 거야.
- 동사구  
예) 꽃이 활짝 피었다.
- 형용사구  
예) 순이는 매우 친절하다.
- 관형사구  
예) 저 헌 옷이 내 것이다.
- 부사구  
예) 민수는 아주 빨리 된다.

### (3) 절(節) → 節: 마디 (절)

절은 두 개 이상의 어절이 모여 하나의 문법 단위를 이룬다는 점에서 구와 비슷하지만, 절을 이루는 요소들이 주어와 서술어 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서는 구와 구별된다. 또한, 절은 더 큰 문장 안에 들어가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인다는 점에서 문장과 구별된다.

- (가) 나는 그 사실을 알았다.
- (나) 나는 철수가 범인임을 알았다.

(가)에서 '그 사실을'은 '그'와 '사실'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므로 구이다. 그러나 (나)의 '철수가 범인임을'은 주어인 '철수가'와 서술어인 '범인이-'가 있으므로 절이 된다. 또한, '철수가 범인임을'은 그 안에 주어와 서술어를 다 갖추었지만, 전체 문장의 일부분으로 쓰였으므로 문장이 아니라 절이다.



### 질문 있어요!



'얼굴이 늙었다'의 '늙다'는 '어떠하다'라는 상태를 나타내는데 왜 동사로 분류하나요?

'무엇이 어떠하다'의 '어떠하다'에 해당되는 형용사가 상태를 나타내는 것은 맞지만 국어에서 '상태'를 나타낸다고 해서 모두 형용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어에서 동사와 형용사를 가르는 기준은 의미가 아니라 활용의 방식입니다. 동사 어간에는 현재를 나타내는 어미 '-니다 / -는다'가 붙을 수 있지만 형용사에는 어미 '-니다 / -는다'가 붙지 않고 '-다'가 결합됩니다. '젊다'의 현재 시제는 '젊는다'가 아니라 '젊다'이지만 '늙다'는 '늙는다'가 가능하므로 '젊다'는 형용사이고 '늙다'는 동사가 됩니다. '지치다, 야위다, 닳다' 등도 상태를 나타내지만 '-니다 / -는다'와의 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동사입니다.



'빨간 꽃이 피었다'의 '빨간 꽃'과 '나는 헌 책이 좋다'의 '헌 책'은 구인가??

구와 절의 구별이 쉽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우는 아이가 많다'에서 '우는 아이'는 '아이가 울-'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절로 보고 있어요. '빨간 꽃이 피었다'의 '빨간 꽃'도 '꽃이 빨강-'에서 온 것으로 보아 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 옷'이 '옷이 새다'가 아니듯 '헌 책'의 '헌'은 '책이 헐다'에서 온 것이 아니고 관형사 '헌'으로 굳어진 것이기 때문에 절로 볼 수 없습니다.

## 1. <보기 1>과 같은 문장의 유형을 <보기 2>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 꽃이 아름답다.

• 하늘이 푸르다.

보기 2

㉠ 백두산이 더 높다.

㉡ 나는 영희를 좋아한다.

㉢ 요즈음 철수가 잘 크다.

㉣ 영희의 눈이 크다.

㉤ 철수는 내 친구이다.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 ㉣

## 2. 다음 문장을 주어부와 서술부로 나눈 후 어절, 구, 절로 분석해 보자.

(1) 그 꽃은 매우 붉다.

• 주어부:

• 서술부:

• 어절:

• 구:

• 절:

(2) 영희는 중학교 선생님이 되었다.

• 주어부:

• 서술부:

• 어절:

• 구:

• 절:

(3) 철수는 어머니가 집에 오시기를 기다렸다.

• 주어부:

• 서술부:

• 어절:

• 구:

• 절: